

제목	중국 국영은행 등의 정기예금 금리 인하와 현지 반응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	주요 내용
---	-------

- 중국 국영은행과 대형 상업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2023.9.1일(금)부터 정기예금(양도성예금증서 포함) 금리를 일제히 인하
 - 국영은행과 대형 상업은행 등의 정기예금 금리가 대체적으로 1년물은 10bp, 2년물은 20bp, 3년물과 5년물은 각각 25bp 하향 조정*
 - * (건설은행 기준) 1년물 1.65 → 1.55%, 2년물 2.05 → 1.85%, 3년물 2.45% → 2.2%, 5년물 2.5 → 2.25%
 - 이는 인민은행이 해당 은행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정기예금 금리를 인하하도록 요청*한 데 기인한 것으로 전언
 - * 인민은행은 중국 금융기관들에게 통지예금 금리(7일물) 등을 2023.5.15일부터 비공식적으로 인하(60bp 내외)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
- 시장참가자들은 금번 정기예금 금리 인하 조치가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비용을 경감하고 순이자마진(NIM) 등 은행들의 영업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

2	현지 반응
---	-------

- 금융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정책금리를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자본유출로 인해 위안화 환율 약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하여 직접적인 정책금리 조정 없이 은행들의 자금조달원가를 낮춘 것으로 평가(中信证券, 太平洋证券 등)

- 정기예금 금리 인하로 인해 자금조달비용이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은행들의 **순이자마진(NIM)** 등 영업여건이 **개선**될 것으로 기대
 - 아울러 금변 조치는 중국의 예비적인 **저축수요**를 **소비**로 **전환**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
- 시장참가자들은 효과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**국영은행과 대형 상업은행들**의 인프라부문 등에 대한 **대규모 신용공급**이 **필요**한 점 등을 감안할 때, 인민은행이 이들 은행의 **영업이익**을 사실상 **일정 부문 보전**해 주었다고 분석(太平洋証券 등)
- 국영은행과 대형 상업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줄어들어 **대출금리 인하** 여력이 **확대**된 만큼 인민은행이 상업은행들을 대상으로 대형 부동산개발기업과 건설업체, 인프라 관련 기업 등에 대한 **저리의 중장기 여신 공급**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
- 한편, 중국 언론에서는 **2023년 상반기 국영은행들의 영업실적 보도**와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① 은행들의 순이익이 인민은행의 LPR 인하 등으로 인해 감소하였으나 **고정이하 여신비율(0.8~1.4%)**이 전년말대비 **감소**하는 등 **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수준**이고, ② 녹색성장, 첨단제조업, 중소기업 등 **실물경제 핵심분야**에 대해서도 **충분한 유동성**을 **공급**하는 등 **긍정적인 측면**을 **강조**(新浪财经 등)
- 반면, **외신**(로이터 8.30일 보도)에서는 대표적 국영은행인 **중국은행(BOC)**의 2023년 **상반기 영업실적 보도**와 관련하여 **지방정부융자플랫폼(LGFV)**에 대한 **신용공여** 등으로 인해 중국은행의 **자산건전성과 순이자마진**(2023.3월말 1.7 → 6월말 1.67%)이 **낮아지는** 등 **지방정부부채 리스크**의 **부정적인 측면**을 **부각**
- 인민은행은 향후 경기부양과정에서 실물경제주체의 자금조달비용 경감과 녹색성장, 첨단제조업 등에 대한 **장기유동성 공급** 등을 위해 **적절한 시기에 지급 준비율**을 **인하**할 것으로 전망(中泰証券 등)
- 한편, 북경 소재 한국계 상업은행들은 인민은행이 조만간 한국계 상업은행을 포함한 **외자계은행**에 대해서도 **정기예금 금리**를 **인하**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예상